

낭만과 열정의 시대 1930년대 총장로로 떠나는 '타임슬립'



만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었다. 극장 주 최선진, 간판장이 달고, 일본 가게 점원 야마다, 소단의 가수 윤혜라, 잡화점 여주인 주향남... 저마다 사연을 가진 인물들이 시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현재로 들어왔다.

광주시립극단이 정기 공연작으로 무대에 올리는 '신시아화(新市夜話)'(17~18일 오후 7시30분, 19일 오후 3시·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는 1930년대 총장로가 배경이다.

최근 연극의 주무대 광주극장에서 진행된 홍보 사진 촬영 현장은 흥미로웠다. 1930년대 당시 복장을 갖춘 배우들은 그 시절을 살고 있는 인물들처럼 포즈를 취하며 촬영에 임했다. 또 간판실 등 작품 배경이 되는 장소를 둘러보기도 했다. 예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극장 복도에 배우들이 서니 완벽한 1930년대 풍경이 재현됐다.

'광주 100년사 연극 시리즈'를 통해 오방 최흥중, 음악가 정율성의 삶을 조명했던 극단은 세 번째 시리즈로 1930년대 총장로 이야기를 택했다. 전작들이 조금 무거운 주제였다면 이번 작품은 관객들이 다소 부담 없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복고풍 시대극이다.

작품 제목 '신시아화'는 1930년대 광주 부호 최석수가 운림당 정자에 올라 전기불을 밝힌 총장로의 모습을 묘사한 시 '신시아화(新市夜話)'에서 따왔다.

작품은 1930년대 빈번했던 화재 사건과 1935년 10월 1일 개관한 광주극장 이야기 등 실화를 바탕으로 연극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

아니었다. 시극 강연회, 각종 공연, 소가 열린 문화 용광로였다. 흥겨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시간은 1935년 그 시절로 타임슬립한다.

총장로 사람들은 광주극장 개관을 손꼽아 기다린다. 세자에 소단의 화려한 축하무대가 예고되면서 총장로는 술렁이는 가운데, 극장 주 최선진은 개별작으로 '아리랑' 상영을 추진 하지만 일반 경찰 하야시의 반대에 부딪힌다.

한편 주향남 양품점은 고리대금업자 기시대의 월세독촉에 시달리다 가게를 뺏길 위기에 처한다. 야마다 양복점 점원 조판수는 화산다방 레지 강봉금을 마음에 두고 있지만 간간한 야마다 사장을 견디다 못해 가게를 뛰쳐나온다. 극장 간판장이 박달포는 화산다방 마담 윤혜라를 모델로 간판 그림을 완성한다. 드디어 극장 개관일. 축제의 분위기가 고조되지만 순식간에 총장로는 불길에 휩싸이고 의문의 화재사건은 총장로 사람들을 위기로 몰아넣는다.

'해무', '만파식적 도난 사건의 전말', '정율성' 등을 쓴 김민정 작가가 희곡을 썼으며 각색과 연출은 '해피투게더', '엔론' 등을 연출한 이수인(테아트르 불날 대표)씨가 맡았다.

광주 대표 배우 노희철씨가 최선진 역을 맡았으며 정순기·윤미란·이명덕·이안나·양선영·정일행·최은영·이지은·김수원·김누리·임성재·안윤국·장승연·이채연씨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전석 1만원. 문의 062-511-275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극단 시대극 '신시아화'
17~19일 문예회관 소극장
당시 상점 거리·극장 소 공연 재현

광주문화재단 '2016 목요상설무대' 참가 작품 공모

15개 예술인·단체 창작금 등 지원

광주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2016 목요상설무대'(4~10월)에 참가할 공연작품 15개를 공모한다.

'목요상설무대'는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6년째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공연 80여회를 통해 예술인들에게는 공연무대를,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재즈페스티벌'이 가능한 재즈장르, 하반기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가능한 클래식 및 국악장르로 제한해 재즈

와 클래식 분야를 특화할 계획이다.

선정된 15개 예술인·단체에는 ▲창작지원금 70만원 ▲공연장 무료대관 ▲장비·시설 운용인력 및 안내스텝 ▲홍보물 제작 등이 지원된다.

접수자격은 광주지역 전문 예술인 및 예술단체이며 재즈·클래식·국악장르로 소공연장 규모에 적합한 작품이면 된다. 광주문화재단(www.gjcf.or.kr)과 빛고을시민문화관(bitculture.gjcf.or.kr)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24일까지 이메일(elan4348@naver.com)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794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직도서관 '양림동 사람과 골목길' 주제 사진전

사직도서관이 도서관 내 사직갤러리에서 31일까지 '양림동 사람과 골목길'을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김영규, 황인숙, 김소영 등 사진작가 3명이 참여해 양림동 골목길에서 마주친 이웃, 오래된 골목길 등을 렌즈에 담은 사진 20여점을 전시한다.

김영규 작가는 2013년부터 양림동을 비롯해 다문화가정, 월산동 등 오래된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가족사진을 촬영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황인숙 작가는 '양림을 배낭합니다' 주제로 양림동 골목을 누비며 이동수단을 촬영해 풀리주 형식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김소영 작가는 양림 오거리의 재정보과정, 폐가에 버려진 장들을 이용해 양림동 사람들의 삶을 조명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관람객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양림동 근대문화를 살펴보고 정겨웠던 옛 골목길



김영규 작 '양림동 사람들'

풍경을 떠올리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613-777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온라인 서포터즈 2기 모집

광주비엔날레재단, 35명 내외

광주비엔날레재단이 2016광주비엔날레를 뉴미디어로 홍보할 광주비엔날레 온라인 서포터즈 2기를 모집한다. 온라인 서포터즈는 광주비엔날레를 SNS를 통해 알리고 소통하고자 기획됐다. 지역 대학생들에게 현대미술 강의, 광주폴리투어, 미디어 맞춤형 교육을 통한 UCC 제작·발표 등 다양한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제2기 모집 인원은 대학생·대학원생 대상 35명 내외이며 활동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다. 특히

2기는 활동기간에 제1회 광주비엔날레(9월2일~11월6일)가 열려 SNS에 관련 소식을 게재하고, UCC·이미지 등 콘텐츠 제작을 통해 홍보도우미 역할을 수행한다.

모집은 오는 22일까지로 접수 방법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sarah.cho@kwangjubienennale.org)로 보내면 된다. 재단 측은 광주비엔날레 체험 프로그램 참여, 전시 무료 관람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62-608-422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서구문화원 '어르신 문화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서구문화원은 인성 2모작을 풍요롭고 뜻 깊게 꾸러는 은퇴 후 실버들을 위한 '2016 어르신 문화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빛! 은빛 청춘의 느낌표'는 자서전 쓰기와 지역 작가 토크콘서트, 야외 낭독회 등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4월 7일부터 10월말까지 매주 목

요일 진행하며 글쓰기에 대한 지도와 집중력 훈련 외에 토크콘서트, 낭독회 등을 통해 자신감 있게 말하는 대화의 기술 등을 익히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은 오는 3월 말까지 광주서구문화원 사무국(062-681-4174)으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접수 하면 된다. 문화원 회원 수강료 무료. 선착순 마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성갱년기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